

가뭄지역 '대체 수원 확보' 10억 지원

전남 강수량 851mm로 평년의 61.5%...완도·신안 등 섬지역 식수난 병목 공급·해수담수화 등 가뭄대책 추진...도 '물 아껴쓰기' 적극 홍보

전남도가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와 식수 부족으로 주민 불편(광주일보 14일자 6면)을 겪는 신안 등 가뭄 우려 지역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3월 완도 노화, 보길, 남도 등 도서지역이 제한급수에 들어감에 따라 예비비 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완도 소안·금일이 11월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신안지역도 식수난 부족 등으로 도민 불편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원한 예비비는 병목 공급, 급수차 운반 지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대형 관정 개발 등 대체 수

원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851mm로 평년 같은 기간(1390.3mm)의 61.5%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원지인 주암, 수어, 평립댐의 평균 저수율이 35.8%로 심각한 단계에 있다.

전남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 8월부터 '20% 물절약'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가뭄 극복을 위해 ▲각 가정에서 주방 및 욕실 등에서 낭비되는 물 최소화 ▲복육탕, 수영장, 골

프장 등 시설에서 물 아껴쓰기 ▲물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서 자체 절감계획 시행 ▲사군에서 절수 관련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가뭄 해소를 위한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해 대체용수 개발 및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조기 완공을 통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완도군청은 14일 완도 4개 도서지역(소안도, 약산도, 금일도, 남도)에 대해 지하수 개발·공급 협약을 체결, 가뭄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지역에 청정지하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뭄 심각' 광주시 물 절약 운동 총력

민관협치협의회, 물 절약 캠페인 동참 실천 방안 마련

광주시가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 고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물 절약 실천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회의를 열고 '범시민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의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의회, 시민·작능단체, 주민자치 관계자, 시민 등 4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긴급 안전으로 물 절약 캠페인 동참을 의결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탁남정수장에서 월 수도물 1만 이상을 쓰는 상수도 다량급수처 30개 기관·업체 부서장과 회의를 열어 '수도물 20% 절약'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3월 동북댐 고갈 위기에 대응한 수도물 공급 전망, 대책을 공유하고 절수 실천에 뜻을 모았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도 이날 오전 시청 로비와 시청 앞 사거리에서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했다. 참여한 직원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며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20% 물 절약 실천을 호소했다.

수도 계량기 수압 조절, 양치 컵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물을 담은 페트병 넣기 등 생활 속 실천 방법도 홍보했다.

광주시는 16일 공무원 전원이 동참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서동욱 도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14일 오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에서 열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농업 기술혁신 플랫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1190억원 투입 반밀폐형 온실 등 갖춰...귀어·청년농업인 교육의 장

14일 스마트농업 경영과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열렸다. 지난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 3년8개월만이다.

총사업비 1190억원이 투입돼 33.3ha 부지에 구축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 온실 2.5ha, 임대형 스마트팜 5.8ha, 실증단지 4.1ha,

3층 규모의 지원센터 0.4ha 등을 갖췄다. 앞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의 장 마련은 물론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날 '농업의 대도약, 미래 100년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승남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공영민 고흥군수, 산업 분야 유관기관장, 청년농 등 3000여명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청년보육 온실에서는 매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52명을 선발해 20개월간 딸기, 멜론, 토마토, 아열대 작물 재배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 이론부터 현장중심 실습 교육을 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창업보육을 수료한 청년농이 저

렴한 임대료로 3년간 입주해 스마트팜을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향후 농업창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실증단지에는 온실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반밀폐형 온실과 최신 장비를 구축했다.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체를 입주시켜 활발한 연구를 통한 기자재 및 재배기술 국산화, 상용화는 물론 수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3층 규모의 지원센터 중 1층에는 영농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김지사는 "전남 고흥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고흥만 일대를 수출전문원예단지,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를 구축해 첨단 농산업 융복합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정부 원로비 정산단가 인상 따라 소매공급비용 4.36% ↑

내년부터 전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대해 4.38% 인상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물가상승세를 고려, 애초 지난 7월 초 예정했던 소비자정책심의위를 늦춰왔다.

하지만 전남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 등을 들어 공급용도의 50%에 달하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일반 영업용, 업무 난방용, 수송용 등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만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원로비+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전체 비용의 87%에 이르는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소매공급비용은 지역별 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에 따라 책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가 소매공급 비용을 동결하더라도 정부가 도매요금을 올리면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되는 구조다.

정부가 이미 지난 7월부터 도매요금을 책정하는 원로비 정산단가를 인상한데다, 이번에 전남지역 소매공급비용 인상도 확정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체 요금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도는 물가상승을 감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민 95% "광주의료원 이용할 생각 있다"

시의회 공공의료 여론조사...한방 진료 필요성 75% 공감

광주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광주의료원 설립 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의료원 설립 후 '자주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41.1%, '필요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54.0%로 조사됐다.

광주의료원 설립 시 제공해야 할 의료 분야로는 '응급 외상 중증 의료' (27.9%)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이어 ▲만성질환 지역사회 건강관리 (25.2%) ▲건강검진 환자안전(13.2%) ▲재활 치료 분야(10.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의료원에 기대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인력 진료 수준' 29.9%, '최신 의료 시설 장비' 22.4%, '다양한 진료과목' 18.0%, '취약계층

진료' 9.1%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한방 진료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4%로 나타나 한방 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26~3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뿐이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